

2016년 3월 3일  
게이세이 전철 주식회사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외국인 관광안내소 인정제도에 있어서  
방일 외국인을 위한 승차권발매·안내카운터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가  
「카테고리 3」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게이세이 전철(본사: 지바현 이치카와시, 사장: 사이구사 노리오)에서는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 구내의 방일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카운터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가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의한 외국인 관광안내소 인정제도에서 「카테고리3」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 (사진 좌측: 외관, 사진 우측: 내관)

외국인 관광안내소 인정제이란, 관광청이 정한 「외국인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방식에 대한 지침」을 토대로 도입된 것으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방일 환경정비의 일환으로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모집을 하여, 안내소를 입지, 기능 등에 따라 세 카테고리 및 파트너 시설로 분류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카테고리3」 인정을 받은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는 영어·중국어·한국어 등에 대응 가능하며,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승차권의 판매·교환에 더하여, 전국의 관광명소 안내 등 외국인 종합안내카운터로서 2015년 12월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카테고리3」 인정을 받은 것은 당사로서는 처음이며 지바현 내에서는 나리타국제공항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센터(제1터미널빌딩·제2터미널빌딩)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게이세이철도는 방일 외국인 고객에게 일본에서의 여행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개요는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의 외국인 관광안내소 인정제도 「카테고리 3」 인정에 대하여

1. 인정시설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
- 【소재지】 나리타공항 제 2 빌딩역 구내  
(지바현 나리타시 후루고메 아자 후루고메 1-1)
  - 【영업개시】 2015년 12월 1일(화)
  - 【서비스내용】 (1) 승차권·스카이라이너권 발매  
(2) 방일 외국인 한정 기획승차권의 발매·교환  
(3) 전국 교통·관광정보 제공  
(4) 고객용 컴퓨터 설치  
(5) 무료 Wi-Fi 제공  
(6) 여행보험 판매, 외화환전·인도, 여행상품 판매
  - 【영업시간】 7:00 ~ 21:00  
※여행보험 판매만 7:00~19:00
  - 【대응언어】 4 개국어 대응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 【직원수】 상시 3명 체제

2. 인정 주체 일본정부관광국(JNTO)

3. 제도 개요
- 관광청이 정한 「외국인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방식에 대한 지침 (2012년 1월 제정, 2014년 8월 개정)」을 토대로 201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
  -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모집을 하여, 안내소를 입지, 기능 등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 및 파트너 시설로 분류하여 인정함

4. 인정구분 카테고리 3

【참고: 인정제도 카테고리별 주요 기준】

카테고리	주요 기준
카테고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영어에 대응 가능</li> <li>· 또한 영어를 제외한 2 개 이상의 언어로 상시 안내가 가능한 체제일 것</li> <li>· 전국 수준의 관광안내를 제공</li> <li>· 원칙상 연중무휴</li> <li>· Wi-Fi 대응</li> <li>· 게이트웨이나 외국인 내방자가 많은 곳</li> </ul>
카테고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어도 영어로 대응가능한 직원이 상주</li> <li>· 광역 안내를 제공</li> </ul>
카테고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는 아니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영어 대응가능</li> <li>· 지역의 안내를 제공</li> </ul>
파트너 시설	관광안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외국인 여행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욕이 있으며, 공평·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안내를 제공

이 상